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하는 2천년 이후의 세계

밀레니엄을 다룬 책 네 권... 희망의 근거이자 비관의 모태가 되는 시간

새 밀레니엄에 대한 담론에는 새로운 세기에 대한 기대와 새 천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현재 인류의 대부분은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교차한다. 새 천년 관련서가 낙관적인 미래주의자와 비관적인 종말론자의 시선을 함께 지닌 까닭은 이 때문이다. 이들 책에서 새로운 시간에 대한 희망과 공포의 근거를 찾아본다.

“과학자이자 지식인인 당신은 예언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2천년을 기리는 책들이 홍수처럼 쏟아질 거라 예측했습니다”라는 질문에 스티븐 제이 굴드는 웃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했다. “하하! 그것은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예언입니다.” 굴드의 말처럼 새 천년을 주제로 쓴 책은 지금도 활발히 출판되고 있다. 새 천년은 지금 우리의 문제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발명한 직선적 시간과 그 종말

미국 생물학자 스티븐 제이 굴드, 프랑스 역사가 장 들뤼보, 작가 장 클로드 카리에르, 이탈리아의 기호학자이자 소설가 움베르토 에코가 서기 1999년과 새 천년을 주제로 행한 대담집 《시간의 종말—새로운 밀레니엄에 대한 4가지 논 의》(문지영·박재환 옮김, 끌리오)를 펴낸 까닭은 세기말이 어찌면 서구문화의 소산일지 모른다는 의구심에서 비롯했다. 새 천년의 이론적 배경을 《정서》,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의 묵시록적인 세계에서 끌어낸 이들에게 세기말이란 지난 2천년 간 인류의 무의식을 지배했던 그 세계를 인류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고찰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이들 중 그 보완적 측면에서 동양의 순환적 시간을 소개한 카리에르의 대답이 눈에 띄는 것은 당연하다. 에코의 말

처럼 직선적 시간과 그 종말이 그리스도교의 발명품이라면, 시간에 대한 동양적 접근은 새로운 빛을 던져주기 때문이다.

비슷한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는 에코와 마르티니 추기경 사이에 오간 서신교환을 옮긴 《무엇을 믿을 것인가》(이세욱 옮김, 열린책들)에서 찾을 수 있다. <요한계시록>과 현대사회의 묵시록적 현상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드는 에코에게 마르티니 추기경은 그 둘의 상관관계는 많지 않다며 이렇게 덧붙인다. “따라서, 지금은 종말을 기다리면서 텔레비전에 낮을 잃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할 일은 아직 많이 있습니다.” 결국 새 천년에 대한 세속주의자와 영성주의자의 교리문답이랄 수 있는 이 책이 주장하는 바는 ‘초월적 윤리’와 ‘자연적 윤리’ 간의 공통점을 공유하고 차이점을 존중하자는 말이다.

희망과 절망의 근거가 되는 시간

새로운 시간 개념을 끌어와 ‘희망의 근거’로 삼자는 주장은 박이문의 《문명의 미래와 생태학적 세계관》(당대)에서도 찾을 수 있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비관적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는 문명의 미래는, 또한 그 때문에 대안적 세계관을 요구한다. 결국 인간은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뿐이지만, 그 선택은 세계에 대한 총체적이고 객관적인 인

식이 전제된 올바른 세계관에서 비롯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책의 주장은 윤리적이다. 글쓰이는 대안으로 일원론적 형이상학과 자연중심적 가치관으로 서술되는 동양적·생태학적 세계관의 조화를 시도한다.

굳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아니더라도 인류의 모습은 충분히 묵시록적이다. 데미안 톰슨의 《종말》(이종인·이영아 옮김, 푸른숲)은 1천년 전과 현재의 다양한 사례를 들며 종말론과 세속사회의 상관관계를 다뤘다. 새 천년에 임박한 세계의 다양한 종말론적 경향에 대한 보고서라고 일컬을 수 있는 이 책은 종말론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지적하는 것으로 끝맺는다. 즉 종말론은 인간의 시간관 중 가장 핵심적인 개인적 시간의 종말, 즉 죽음에 파고 든다. “나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2100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굴드의 말처럼 새 천년이 아무리 희망스러운 세계라고 하더라도 그 때 우리들 모두는 죽는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이 제시하는 종말론의 근거다. 새 천년을 맞이하는 인류의 마음이 달콤씹쓰름한 까닭은, 희망과 절망이 동시에 교차하는 까닭은 새 천년을 사이에 두고 ‘개인적 시간’과 ‘초월적 시간’이 서로 교차하기 때문이다.

— 김연수 기자